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1주일 · 예수 성심 성월

제33권 29호(다해) 2013-6-16

[묵상]



시몬의 집에서의 그리스도

<디에릭 보우츠, 15c, 베를린 국립박물관 소장>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인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었다.
아무에게나 베풀 수 없는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걸림돌이 되어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죄인이기에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기에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큰 사랑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음을.....
이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큰 사랑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죄인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저희와는 생각이 다르십니다.
사랑하는데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랑받는데 다른 눈을 의식하는 우리
예수님은 큰 사랑 자체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서는 용기,
예수님만이 자기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주실 수 있다는 확신,
그 여인의 용기와 확신이 부럽습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생)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이재우 마티아, 권복남 모니카, 전시웅 요한, 김금점 모니카,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고준희 제임스, 정학순 발바라, 주용범 아브라함, 이정석 & 김동순 (생) 오세호 레이몬드, 이윤조 클라라,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테레사 가정, 최성자 카타리나, 김기현, 민석준 토마스 & 미애 가정 & 민영준 마르코 임봉순 아녜스 & 박재우, 김평, 요셉회 회원들,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하권(2 Samuel) 12,7-10.13

화답송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적이 없는 사람!○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을, 모두 환호하여라.○

제 2독서 갈라티아서(Galatians) 2,16.19-2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복 음 루카(Luke) 7,36-8,3<또는 7,36-50>

영성체송 주님께 칭하는 오직 한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10	249	182
봉헌	There is None Like You	269	270
성체	Here I am to Worship	302	289
파견	424	311	31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신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세상에 대한 투신

▶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이주민들

105).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역사와 역사 안에서 싹트는 새
로운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 주교 대의
원 회의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연관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전
에 없이 증가한 이주민들의 움직임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에도
눈길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가들의 안전과 피난
처와 더 나은 삶의 조건, 건강과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
어야 할 수용에 관한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그리
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적절한 표상을 가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적 전통을 지닌 나라들에 정착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깊이 특징지어진 민족들에 속하
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나라들과 새로운 복음
화가 필요한 나라들로 이주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져옵니다. 이점
에 대하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교부들은, 이주민들이 케
리그마(kerygma)를 들을 권리가 있고 이것은 그들에게 명령
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을 강화하고 그들 자신이 복
음을 선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목적 도움이 필
요합니다. 이 현상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해당 교구들이 움직
임으로써 이주민들의 이동이 새로운 현존과 선포의 방법을 발
견하게 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적절하게 이 우리의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고무함으로써
그들이 기쁜 소식에 감화되어 그들 자신이 하느님 말씀의 선
포자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고통 받는 이들

106).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작업 기간 중에 교부들은 신체
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말
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실상 고통
의 순간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궁
극적인 질문들이 더 날카롭게 제기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말이 악과 고통의 신비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우리의 사회가 효
율성과 건강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에만 그 삶이 가치
가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면, 반면 하느님의 말씀은 이러한 상
황들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자애로우심에 “안겨”있
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계속>

바리사이 시몬과 죄많은 여인은 남매가 아니었을까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남매가 있습니다. 오빠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소위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말썽만 피우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늘 손가락질 당하는 문제아입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제대로 큰일을 저지릅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값비싼 꽃병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생은 아빠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갇은 애교를 다 부립니다. 오빠는 동생의 행동이 역겹습니다.

복음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바리사이 시몬과 예수님은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로마사람들처럼 커다란 방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였던 듯한데, 온 동네가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발치에 있다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풀어 닦아 드립니다.

게다가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발라 드립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소리죽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나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였지만 자기변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인을 두둔하시면서 500테나리온과 50테나리온의 빚을 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루카 7,42)는 말씀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사실대로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크기와 무관하게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죄의 빚을

탕감해주신 하느님을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하느님께 모범적인 아들이나, 말썽쟁이 딸이나 모두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바리사이 시몬은 예수님을 최소한의 격식에 맞춰 모셨을 뿐, 정작 중요한 ‘더’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물이 아니라, 자신의 참회의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분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까지 발라 드립니다. 여인은 ‘더’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루카 7,50)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바리사이 시몬도 사랑하시고, 죄 많은 여인도 사랑하십니다.

둘 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몬과 여인의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엄친아 바리사이 시몬은 “우리 아들 최고!”라는 부모의 ‘칭찬’에 집착하고, 말썽쟁이 죄 많은 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면 언제라도 다시 받아주시는 부모의 ‘마음’에 매달립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낙태법을 조장하고 승인한 입법자들도,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습니다. 낙태를 조장하는 보건 센터의 행정 담당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59항 -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요셉회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현영화 베로니카
제물봉헌자			건진성사자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Happy Father's Day! ♡

6월 셋째주일인 오늘은 아버지날(Father's Day)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본당 교우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 마다 앓고 늘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들과, 신부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 ◆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 교리기간 : 6월13일~12월19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세례식 : 12월25일 성탄대축일
 - 교리지도 : 오마우라 수녀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Virtus Training(청소년 보호 봉사자 필수 교육)
 - 일시 : 오늘주일(16일) 오후 3시~5시 강당
 - 대상 : 성직자, 수도자, 청소년관련 사목위원, 주일학교, 한국학교 교사, 자모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봉사자
 - 강사 : 서정우 프란치스코 교리교사
- ◆ 골수기증 등록 받습니다.(아시아골수기증협회)
 - 일시 : 오늘주일(16일) 학생미사와 낮미사후 회의실
 - 대상 : 만 18세~44세(1969년~1995년생)
 - 문의 :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 견진성사 : 본당신부님의 교육과 리허설
 - 일시 : 6월22일 오후 8시(토요특전미사후)
 - 견진성사 예식 : 6월23일 주일 낮11시 미사중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 대부 대모님들께서 반드시 참석해야합니다.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 백삼위 탁구동호회 회원 모집
 - 대상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후 3시 강당
 - 회비 : 연 \$50
 - 문의 : 동호회장 김용스테파노 ☎(310)926-2248

- ◆ 올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백삼위 본당이 주관
금년 추수감사절(11월28일) 합동 야외미사를 본당에서 주관합니다. 이 행사에 걸맞은 주제표어와 미사후 2부행사 내용에 관해 여러교우들의 의견을 공모합니다.
 - 주제 표어 : 한 문장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내용
 - 2부 행사 : 미사후 각 성당간 친교를 나누는 2부 행사에 적합한 내용
 - 제출 : 신중철 아브라함 사목회부회장 ☎(310)619-4343

- ◆ 2013년 제26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코 5,34)
 - 일시 : 7월27일(토)~28일(주일)
 - 장소 : 패사디나 시티칼리지 강당
 - 강사 : 박효철 신부(청주), 임문철 신부(제주),정광호 신부(보스턴), 배기현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지도)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문의 : 김충섭 마틴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회장
 - 연락처 : ☎(213)435-7570
- ◆ 목요 그룹 성서 공부반 개설 예정
매주 목요일 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성서공부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개강날짜 및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 ◆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 모집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본당 마라톤 동호회가 14세 이상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장소 : 토런스 하이스쿨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6월16일(주일) : 토런스 남1반(소고기국밥 \$3)
*주일학교(자모회회원+ 아버지들 핫도그 & 칩)
 - 6월23일(주일) : 토런스 서2반(카레덮밥 \$3)
* 주일학교 방학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윤철 권태만 금동균 김관기 김기정 김영길 김옥보 김우용 김원호 김윤진 김정웅 남명자 노혜숙 민기남 민순섭 민형기 박영희 반비오 성필영 송재훈 신경훈 안 용 윤희동 이경수 이귀분 이남현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일길 이재용 이현주 이효세 장영우 장정진 정정현 정훈모 주용순 최의수 한혁수 황인중 황지영 한길선례 이크리스 송마이클 합계 : \$3,705
주일미사 헌금: \$3,521	

성전헌금	강윤철 권태만 금동균 김관기 김기정 김영길 김옥보 김우용 김원호 남명자 노혜숙 민기남 반비오 성필영 신경훈 안 용 윤희동 이경수 이귀분 이남현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현주 이효세 장영우 장정진 정정현 정훈모 주용순 한혁수 황인중 황지영 한길선례 이크리스 송마이클 합계 : \$2,335
감사헌금 : 박정희	한남체인 도네이션 : \$260

공지사항

노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 주일학교 은총시장

- 일시 : 오늘 주일(16일)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후
- 장소 : 성당 운동장 ● 대상 : 주일학교 유치원~6학년
- 은총시장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상품과 물적 도움을 주신 교우들과 사목회,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종강 및 시상식

- 주일학교 : 오늘주일(16일) 학생미사 중 각 학년별 우수상, 모범상, 개근상 수여. 미사후 수업있음.
- 한국학교 : 오늘 주일(16일) 오후 2시30분 성당. 우수학생들에게 시상 있습니다.

◆ 2013-2014학년도 주일학교 / 한국학교 등록 접수 중

◆ '글로벌 시대의 한국어 교육' 세미나

- 일시 : 오늘 주일(16일) 오후 1시30분
- 강사 : L. A. 3가 초등학교 교장 Dr.수지 오
- 대상 : 한국학교, 주일학교 학부모님 및 교육에 관심있는 분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8일(금)~30일(주일), 데마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노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6/15(토) 오후 6시30분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6/15(토) 오후 7시 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6/22(토) 오후 7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진형태 요한 424-241-5988 6/16(주일) 베이커리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김현숙 벨레렛다 626-905-4114 6/7(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엄영숙 마리아 373-5662 6/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6/11(화) 오전 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6/29(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6/15(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켄마 818-640-3656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6/15(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정훈모 바오로 377-1271 6/14(금) 오후 7시
	2	김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541-3687 6/14(금) 오후 7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6/14(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귀란 아베스 377-6752 6/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아버지날, 사목회장단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12/13 회기 마지막 회의)	오후 1시 강당
----------------------	----------

남가주 소식

◆ 제19차 선택 주말 신청 받습니다.

- 일시 : 7월19일(금)~21일(주일),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
- 대상 : 미혼남녀(23세~36세) * 지도 : 김종기 요셉 신부
- 신청 : 남가주선택협회장대표 홍재훈이삭 ☎(818)282-0770

◆ 가톨릭 예수회 성령대학 5학기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3'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7월26,27,28일(금,토,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버몬트 + 아담스)
- 수강료 : \$50 ☎(323)731-4433

◆ KYCR 제22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8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리버사이드 Divine Word 피정센터
- 지도신부 : 정브라이언 신부(KYCR 남가주성령체신청년봉사회)
- 참가대상 : 18세~30대 미혼/기혼 청년
- 회비 : \$160(7월20일이후 \$180)
- 연락처 : 이원록 ☎(562)688-4322

Q&A

죄는 무엇이며 고해성사의 효과는 어떤 것...

천주교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성품성사로 축성된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는 무엇이기에 성사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죄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에 상처를 입혀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49항)

결국 죄는 온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입니다.

참 행복은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끊임없이 흐르는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죄는 이 흐름을 가로 막아 사람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건강한 혈액이 온 몸 안에 꾸준히 흐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가 굳어져 생긴 혈전은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여 생명유지에 필수통로인 혈관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동맥 경화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불러옵니다. 죄는 하느님의 은총을 차단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느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삶은 어두워지고 절망의 늪은 더욱 깊어갑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몸에 달라붙은 지저분한 흙먼지를 씻어 주어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주고, 훌륭한 의사의 처방은 병자를 동맥경화로부터 회복시켜줍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 제거할 수 있듯이, 죄는 하느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만큼 그분의 용서도 끝없이 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셨습니다. 원수들의 용서를 위한 기도가 십자가에서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루카 23,34) 용서의 위대함이 세상에 퍼져가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명은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에 접목되면 가능합니다. 하느님과 친교를 방해하는 죄는 구원에 있어 결정적 걸림돌이며 대죄를 지은 채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대죄에 떨어져 세례 때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일치에 손상을 입힌 사람들을 위하여 고해성사를 세우셨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46항)

고해성사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탕자처럼 깊은 뉘우침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며 하느님과 결합하게 해주고, 참된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문명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자만의 결과입니다. 죄는 육체의 압보다 더 처참한 절망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고해성사는 선택이 아니고 치유를 위한 필수입니다. 고해성사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출애굽이며, 우리 영혼에 평화가 배달되는 주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루카 7,47)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길을 찾는 그대에게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성당을 가야하는 형식적 신앙의 강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도덕적 행위’로 채워지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시각이며 세상의 평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행위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당신을 알지 못한채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대해서 알 기회를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는다면 지혜를 거부한 행위입니다. 곧 ‘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사면된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진리를 믿고 화답하는 영혼에게 하느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선물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느님의 뜻을 배우고 익혀 참 자유를 누리는 하늘 학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세간의 평판 좋은 착한 사람을 넘어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순명의 삶을 명하십니다. 선하고 착한 삶을 살려는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장재봉 신부/부산교구 환천성당